

남성의 클래식 재킷원형에 관한 연구

— 20대 초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

이 정 임 · 남 윤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Pattern Making of Men's Classic Jackets

— For ages of the early in the twenties —

Jeong-yim Lee · Yun-ja Na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4. 1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lassic jacket pattern for Korean young men whose chest circumference is 91~94cm, status is 170~175 cm, and drop value between chest and waist circumference is 15.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the following procedures.

1. Through the comparative investigation on the conventional classic jacket patterns of Hyung-sook Lee's, 文化's in Japan, and SMA's and the clothing experiment, the characteristics of every three patterns were found.

2. According to correct the unsuitable point in Hyung-sook Lee's pattern which was found more suitable than other two patterns and to refer to the product size of the ready-made classic jackets for men, the new suitable classic jacket pattern was achieved.

3. The sensory evaluation for appearance and comfort and one to one comparison was applied to evaluate the new classic jacket pattern by comparing with the Hyung-sook Lee's jacket pattern. From the result of the sensory evaluation and one to on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the new classic jacket pattern was more suitable for appearance and comfort.

4.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suitable surplus of men's classic jacket at present is about 23~24cm on the chest circumference, 31~32 cm on the waist circumference, 14~15 cm on the hip circumference, 13~14 cm on the upper arm circumference, and 14 cm on the wrist circumference and the ease is about 3.5 cm on the armhole circumference. This size is not the absolute size but it helps to make the surplus in any other clothes for Korean young men.

Key words: classic jacket pattern for men, surplus in clothes, one to one comparison; 남성의 클래식 재킷 원형, 의복의 여유분, 일대일 비교

*본 논문은 1998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 론

1997년말 경제적 침체를 맞기 이전까지 국내남성의류산업은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남자 기성복 브랜드가 여성복 못지 않게 확장되어 왔다. 또한 남성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증가하여 다양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복시장의 요구변화에 비하여 남성복 분야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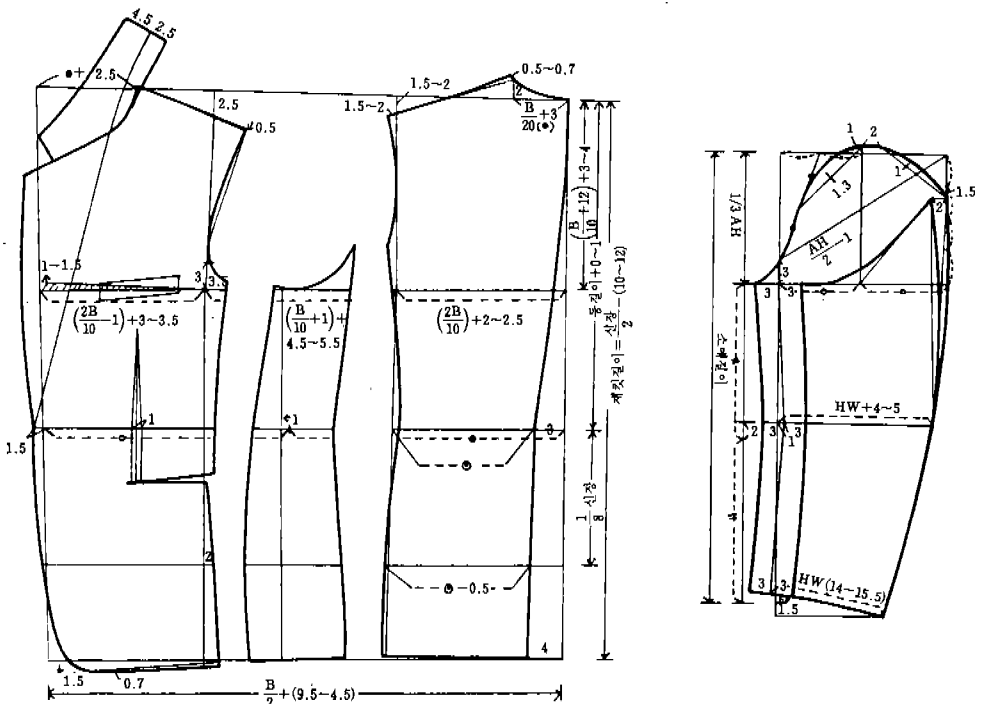
남성복원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체형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남성의 체형분석에 관한 연구에는 김주자¹⁾, 유신정²⁾, 박은주³⁾, 김계선⁴⁾의 연구 등이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도 신장이 약 5~10cm 크지만 머리는 남자쪽이 크기 때문에 프로포션은 남녀 모두 7.5頭高의 신장지수가 표준으로 되어있다. 남자와 여자의 체형에서 가장 다른 점은 남자는 걸보기의 느낌보다도 실측해 보면 가슴이 두껍고 크다는 식으로 실제치수가 걸보기치수보다 크다는 것이다⁵⁾. 우리나라 남성의 체형 특징은 극단적인 체형이 적고 비교적 균형잡힌 균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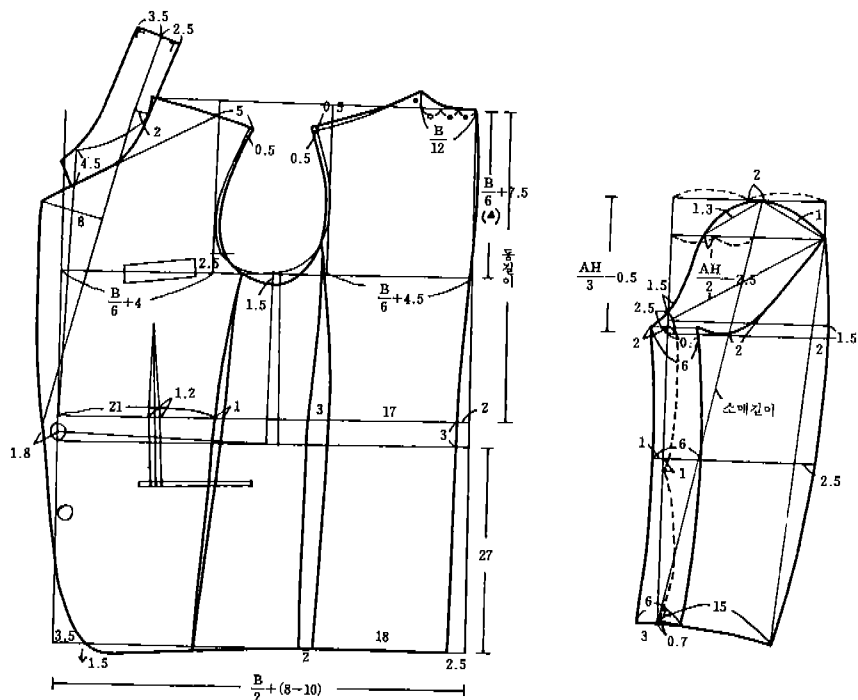
에 속하며^{6,7)} 20대 남성은 골격이 크고 근육질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흉부에서 어깨너비에 걸친 부위가 우세한 역삼각형의 남성적 체형특징을 나타낸다⁸⁾. 또한 유신정⁹⁾은 20대 남성의 초반과 후반의 체형특성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남성복 원형에 관한 연구로는 상의원형에 관한 연구^{10~13)}, 소매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¹⁴⁾, 바지원형에 관한 연구¹⁵⁾, 동작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연구^{16,17)},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¹⁸⁾ 등이 있으나 여성복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성의 재킷원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로서 길과 소매를 분리하여 둘 중 어느 한가지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길과 소매가 연결된 재킷원형으로 발전시켜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킷원형에 대한 검토 및 보다 적합한 재킷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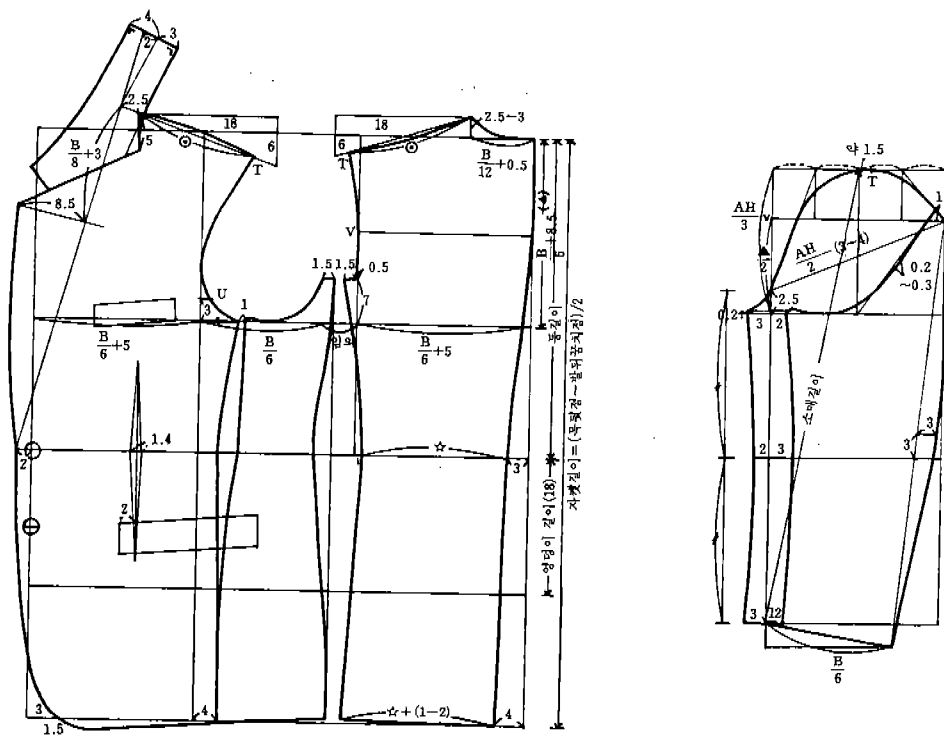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남성 클래식 재킷 원형에 대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원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형속식 제도법



[그림 2] 문화식 제도법



[그림 3] SMA식 제도법

1) 원형상의 비교와 착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남성 클래식 재킷 원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각 원형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2)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성복의 실루엣과 여유감을 참고하여 학교와 업체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킷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기존원형에 대한 검토

1) 비교원형의 선정

비교대상이 되는 남성 클래식 재킷 원형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형숙식¹⁹⁾, 문화식²⁰⁾, SMA식²¹⁾의 3종류를 사용하였다. 남지원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던 독일의 필러식을 제외한 것은 선정된 비교원형 중에 필러식 방법을 수정 응용시킨 원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원형의 제도법은 [그림 1~3]과 같다.

2) 연구대상

피험자는 가슴둘레가 91~94 cm인 20대 초반의 남성 중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가 15²²⁾이고 신장이 170~175 cm에 해당하는 피험자 5명을 선정하였다. 드롭치 15는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²³⁾에서 20대 초반 남자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평균의 차이가 약 15였기

때문에 이 드롭치를 사용하였다. 측측은 원형제도에 필요한 항목과 여유분 설정시 기준이 되는 부위를 포함하여 총 9항목을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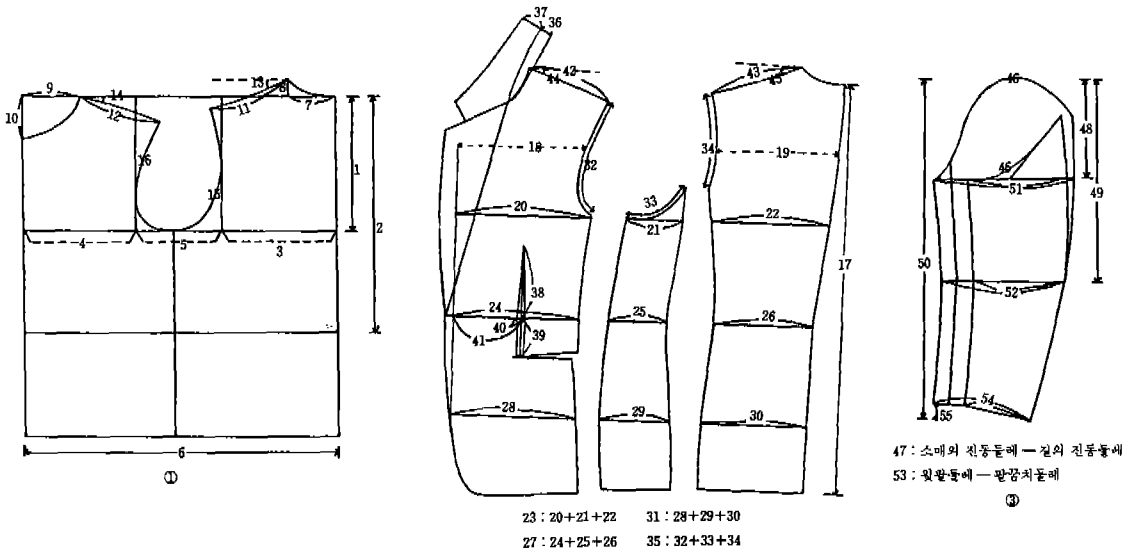
<표 1> 피험자의 신체치수 (cm)

피험자	A	B	C	D	E
신체치수					
가슴 둘레	91	94	91	94	91
허리 둘레	76	78	76.5	79	76
엉덩이 둘레	96	95	99	100	95
등 길이	44	45	46	45	44.5
소매 길이	62	62	57	59	56
손목 둘레	16	17	16	17	15.5
신장	173	172	170	170	171
체중	60 kg	62 kg	63 kg	63 kg	61 kg
연령	23세	25세	22세	22세	23세

과 같다.

3) 원형상의 비교

각 피험자에 대한 3종류의 원형에 대해 원형상의 치수를 측정하여 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통해 3원형을 비교하였다. 원형상의 치수 총 55항목은 [그림 4]와 같으며 1~18항목은 기본원형에서 설정된 항목이고 19~55항목은 재킷원형에서 설정된 항목이다.



[그림 4] 원형상의 비교항목

<표 2> 착의실험의 비교항목

비교 항목	내 용
외 관	칼 라 칼라의 높임, 칼라의 크기, 누입각도
	소 매 진동둘레의 위치, ease분량, 윗팔둘레의 여유, 소매길이, 밑단둘레의 여유, 전체적 외관과 전방성, 군주름 여부
	길 앞뒤폭의 여유,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여유, 재킷길이, 전체적 실루엣, 어깨선의 위치, 앞허리다트의 위치와 분량, 등부위의 맞음새, 군주름 여부
기능성	오른쪽 팔을 앞쪽으로 90°·180°올리기, 오른쪽 팔을 옆쪽으로 90°·180°올리기, 팔짱끼기

<표 3> 소재의 특성

조 직	두께 (mm)	번 수		밀 도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평 직	0.46	20's	22's	58	60

<표 4> 기성복의 제품치수 (cm)

항목	호칭	565(170-94-79)	676(175-97-82)
가슴둘레		107	110
허리둘레		100	103
어깨너비		46.3	46.9
소매길이		58.5	59.5
재킷길이		74.5	76
		가슴둘레가 92 cm내 외인 사람이 착용	가슴둘레가 95 cm내 외인 사람이 착용

4) 착의실험

피험자 5명에 대해 3종류의 원형을 사용하여 제작한 클래식재킷을 착용시켜 3원형을 비교하였으며 비교항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착의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100% 광목으로 하였으며 그 물성은 <표 3>과 같다.

2. 연구원형의 제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업체에서 공동으로 활용될수 있는 원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착의실험과 원형상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성복의 제품치수를 참고하여 3차례의 착의실험을 거

쳐 수정된 연구원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유감각은 실루엣에 좌우되어 변화되는 것이므로 본연구에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기성복의 여유감과 실루엣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드롭치 15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에게 적합한 기성복의 제품치수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3. 착의평가

의복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착의평가방법에는 관능검사법, 의복압측정법, 무아레법 등이 있는데²⁴⁾,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형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관능검사법과 일대일 비교법²⁵⁾을 사용하여 착의평가를 하였다. 관능검사법은 인체에 착용된 상태에서의 실루엣과 동작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류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이며, 일대일 비교법은 비교대상이 되는 원형을 순서에 의한 조합을 만들어 피험자에게 착용시킨 후 먼저 착용한 원형을 기준으로 나중에 착용한 원형을 평가하게 하는 상대적 평가방법으로 본 연구에서처럼 기존원형과 연구원형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기존-연구', '연구-기존'으로 순서조합이 만들어져 비교가 이루어진다. 일대일 비교법의 장점은 착용자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통해 검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능검사항목은 기존의 연구²⁶⁻²⁸⁾와 문헌조사^{29,30)}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외관 검사항목은 여유분, 기준선의 위치, 군주름 여부 등과 관련된 20항목을 선정하였고 기능성 검사항목은 오른팔을 앞, 옆으로 올리기, 팔짱끼기 등의 동작을 포함하여 5항목을 선정하였다. 외관관능검사의 검사지는 구성학 전공의 대학원생 5명으로 하였고 평점방법은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및 분석은 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원형간의 유의차를 t-test로 검증하였다. 또한 종합적 신뢰도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자들 상호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기능성관능검사의 평기는 피험자 자신이 하였으며 평점방법과 평가 및 분석방법은 외관검사와 동일하다. 일대일비교는 기존의 피험자 5명과 같은 사이즈 스펙에 포함되는 피험자 20명을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착용자가 먼저 착용한 원형에 비하여 나중에 착용한 원형의 외관과 기능성이 각각 '더 좋다-더 나쁘다'의 5점 평정척도에 의해 평가하게 하였다. 착용순서는 무작위로 하였으며 착용순서를 바꾸어 반복실험을 하였다.

<표 5> 분산분석과 DUNCAN test 결과

항 목	DUNCAN집단	F값	항 목	DUNCAN집단	F값
1. 진동깊이	C A B	0.96	29. 영덩덩이너비	A/C/B	34.61****
2. 등길이	A C B	1.63	30. 뒤영덩이너비	A/C B	14.88****
3. 뒤편a	C B A	1.07	31. 28+29+30	A C/B	3.49*
4. 앞뎡a	C B A	1.42	32. 앞진동들레b	B/C A	15.21****
5. 거드랑너비	A C/B	42.23****	33. 옆진동들레	C A/B	4.13**
6. 가슴들레(1/2)	C/A B	6.19**	34. 뒷진동들레b	A/C B	4.84**
7. 뒷목너비(1/2)	C A B	1.09	35. 32+33+34	C B A	0.23
8. 뒷목높이	A C/B	452.67****	36. 뒤칼라의 스탠드분	B' A C	0.35
9. 앞목너비(1/2)	C/B A	24.60****	37. 뒤칼라폭	A C B	0.09
10. 앞목깊이	A C	0.32	38. 허리다트깊이(허리선위)	C B A	2.25
11. 뒤어깨길이a	A/C B	5.45**	39. 허리다트깊이(허리선아래)	B C A	0.35
12. 앞어깨길이a	A/C B	6.95***	40. 허리다트량	A B C	0.33
13. 뒤어깨각도a	A C/B	18.60****	41. 앞중심~허리다트중심선	A C/B	3.47*
14. 앞어깨각도a	B/C/A	19.76****	42. 앞어깨길이b	A/C B	9.54***
15. 뒷진동들레a	A B C	0.06	43. 뒤어깨길이b	A C B	1.23
16. 앞진동들레a	B A/C	7.58***	44. 앞어깨각도b	A B/C	8.36***
17. 재킷길이	C A B	1.99	45. 뒤어깨각도b	A C B	0.32
18. 앞뎡b	A C/B	10.01***	46. 소매진동들레	C A B	2.15
19. 뒤편b	A C/B	7.93***	47. 소매진동들레 길진동들레	C/B/A	28.90****
20. 앞너비(가슴들레수준)	C B A	2.11	48. 소매산높이	C B A	1.25
21. 옆너비(가슴들레수준)	A/C B	11.00**	49. 팔꿈치길이	C B A	2.11
22. 뒷너비(가슴들레수준)	C B A	0.16	50. 소매어깨점~소매밑단의수직길이	C A B	0.08
23. 20+21+22	A/C B	8.25***	51. 윗팔들레	C A/B	7.41***
24. 앞허리너비	C/B A	3.88*	52. 팔꿈치들레	C/A B	2.90*
25. 옆허리너비	A/C/B	27.82****	53. 윗팔들레-팔꿈치들레	A/B C	19.92****
26. 뒤허리너비	A/B C	12.45***	54. 손목들레	A C/B	57.67****
27. 24+25+26	A/C B	12.03***	55. 소매밑단의 높이차	C/B A	23.19****
28. 앞영덩이너비	B/C/A	70.05****			

1. A : 문화식, B : SMA식, C : 이형숙식

2. DUNCAN 집단에서 왼쪽에 기입된 것이 평균이 가장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또한 /에 의해 구분된 것은 서로 유의하게 차를 의미한다.

3. *0.05 < a ≤ 0.1 **0.01 < a ≤ 0.05 ***0.001 < a ≤ 0.01 ****a ≤ 0.001

III. 연구결과

1. 기존원형에 대한 검토

1) 분산분석 결과

3종류의 원형을 비교하기 위해 원형상에 [그림 4]와 같이 총 55항목을 설정하고 치수를 측정하여 일원 분산 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이에 의해 각 원형이 갖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즉 문화식 원형은 거드랑너비(5), 뒷목높이(8), 어깨길이(11, 12), 뒤어깨각도a(13), 앞뎡b와 뒤편b(18, 19), 가슴들레(20+21+22), 옆 허리와 영덩이너비(25, 29), 뒤 허리와 영덩이너비(26, 30), 뒷진동들레(34), 앞어깨길이(42), 윗팔들레-팔꿈치들레(53), 손목들레(54) 부위에서 다른 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앞목너비(9), 앞어깨각도a(14), 앞허리들

레(24), 앞영덩이둘레(28), 앞진동둘레(32), 소매의 진동둘레-길의 진동둘레(47) 부위에서 다른 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SMA식 원형은 앞어깨각도a(14), 앞진동둘레(16, 32), 앞영덩이둘레(28) 부위에서 다른 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가슴둘레(6), 뒷목높이(8), 앞, 뒤어깨길이(11, 12), 앞폭b와 뒤폭b(18, 19), 옆너비(21)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이형속식 원형은 가슴둘레(6), 앞목너비(9), 앞허리둘레(24), 옆진동둘레(33), 소매의 진동둘레-길의 진동둘레(47), 윗팔둘레(51), 팔꿈치둘레(52) 부위에서 다른 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앞진동둘레(16), 뒤허리둘레(26), 앞어깨각도b(44), 윗팔둘레-팔꿈치둘레(53) 부위에서 다른 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문화식 원형은 앞을 작게 뒤를 크게 배분하고 있으며 윗팔과 팔꿈치의 둘레 차가 큰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SMA식 원형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작게 나타나 다른 원형에 비해 몸에 꼭 맞는 원형이고, 이형속식 원형은 3원형 중 가슴둘레에 여유분을 가장 많이 두고 있으며 윗팔둘레와 팔꿈치둘레가 크고 두 치수간의 차이가 작아서 소매통이 다른 원형에 비해 넓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착의실험결과

피험자 5명에 대해 3종류의 원형을 사용하여 제작한 클래식재킷을 착용시켜 <표 2>의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칼라의 높임새는 3원형 모두에서 적당하였으며 칼라의 크기는 SMA식이 가장 적당하였다. 진동둘레는 문화식 원형의 경우 소매의 뒷진동둘레가 너무 커서 오그림분이 많이 생겨 부풀어 보였으며 상완골 앞부분은 오히려 인체에 너무 피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뒷진동둘레가 다른 2원형에 비해 유의하게 크고 앞진동둘레가 유의하게 작게 나타난 분산분석결과와 일치한다. SMA식 원형은 모양은 적당하였으나 상지동작시 진동부분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형속식 원형은 소매단의 앞뒤경사가 심했으며 손목둘레의 여유는 3원형 중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뒤폭수준에서의 여유분과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문화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형속식, SMA식 원형의 순으로 적었다. 허리둘레와 영덩이둘레의 여유분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재킷길이는 문화식이 약간 짧았으며 나머지 2원형은 약간 길게 나타났다. 앞허리다트

는 문화식의 경우 기본원형에서 3cm 올린 위치를 허리선으로 하고 있는데 착의 실험 결과 허리선이 너무 올라간 느낌을 주었다. 또한 문화식 원형에서 어깨선의 위치는 인체의 어깨선보다 약 1.5~2cm 뒤쪽으로 가 있었으며 SMA식도 어깨선 끝이 약간 뒤로 가 있는 경향이였다. 등 부분의 맞음새를 살펴보면 문화식은 등에 여유가 너무 많고 피험자 B의 경우 뒷목아래에 가로주름이 만들어졌다. SMA식은 문화식보다 잘 맞으나 약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옆판은 문화식의 경우 옆판의 너비가 크고 밑단쪽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휘어 심한 경사를 가지며, SMA식은 옆판의 너비가 3원형 중 가장 좁고 뒤쪽으로 가 있는 경향이였다. 이상과 같은 착의실험 결과는 분산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결론적으로 이형속식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영덩이둘레의 여유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적합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으며 소매통도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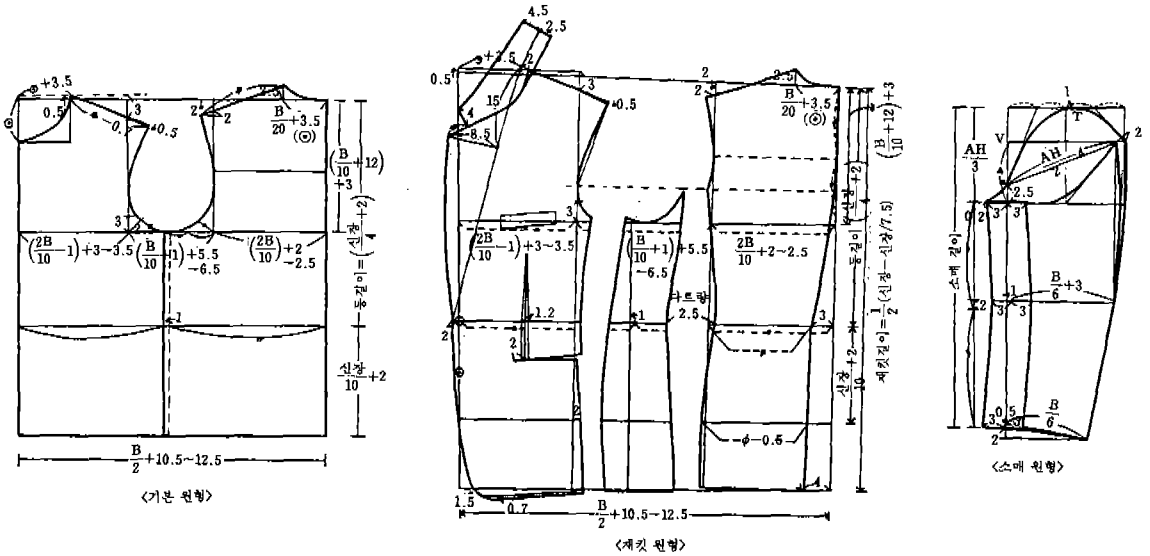
2. 새로운 재킷원형의 제시

착의실험과 원형상의 비교를 통해 3원형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문제점이 적게 나타난 이형속식 원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성복의 제품치수를 참고하여 3차례의 착의실험을 거쳐 [그림 5]와 같이 수정 보완된 새로운 재킷원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재킷원형은 기성복의 실루엣과 여유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존원형(이형속식)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원형에 비해 앞목너비의 치수를 크게 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원형에서처럼 가슴경사를 넣지 않고도 앞길이가 짧아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또한 칼라의 귀입각도를 크게하여 칼라가 안정되게 놓이고 뒷중심에서 칼라 폭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② 어깨끝에서 약간 뒤로 돌아가는 경향이었던 어깨선을 제 위치에 오도록 하고 패드본을 고려하여 어깨경사의 처짐치수를 앞, 뒤 모두 0.5cm씩 크게 하다. 어깨선이 약간 뒤에 가서 설정되는 것이 착용자에게 더 편안할 수는 있으나 연구자는 모든 기준선이 신체의 기준선상에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어깨길이는 0.5cm 크게 하였다.

③ 진동둘레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소매의 기능성을 위해 겨드랑 너비의 여유를 크게 하였다.



[그림 5] 연구 원형

④ 공업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계속하여 원형을 제도하면 여유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므로 연구원형에서는 가슴둘레 치수를 '신체 가슴둘레 + 2 cm'로 하여 제도하였다.

⑤ 소매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전방성의 실루엣을 갖도록 수정하였으며 ease분량을 3~4 cm로 하기 위해 너비의 기준치수를 A.H/2-4로 정하였다. 또한 팔꿈치와 소매부리의 둘레치수는 몸판의 여유와 조화를 이루어 적합한 실루엣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산출식을 사용하였다.

⑥ 남자는 여자에 비해 반신의 경향이 강하므로 앞목 너비 설정의 가로 기준선을 뒤쪽에 비해 0.5 cm 높였다.

⑦ 신장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재킷길이를 산출해내기 위해 재킷길이를 '신장/2 - (10~12)'에서 '1/2(신장 - 신장/7.5)'로 수정하였다. 여기서 7.5는 7.5頭高의 신장지수에서 나온 수치이다.

⑧ 뒤엃선의 허리다이트³⁾ 설정시 다트량을 3.5 cm에서 2.5 cm로 수정하여 허리와 엉덩이둘레로 이어지는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엉덩이둘레 여유분의 부족함을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재킷원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남성 클래식 재킷 원형의 여유분은 가슴둘레에서 신체치수 + 23~24 cm, 허리둘레에서 신체치수 + 31~32 cm, 엉덩이둘레에서 신체치수 + 14~15 cm, 윗팔둘레

에서 신체치수 + 13~14 cm, 손목둘레에서 신체치수 + 14 cm, 그리고 소매의 ease분이 3.5 cm 내외이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치수가 아니며 디자인과 유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치수이지만 다른 복종의 원형제작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능검사

연구원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하여 3원형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이형속식 원형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연구원형에 대해 외관과 기능성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다수에게 확인해 보고자 앞의 착의실험에 사용된 피험자와 같은 사이즈 스톡에 포함되는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대일 비교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에 의한 평가

① 외관관능검사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적 신뢰도계수를 구한 결과 기존원형과 연구원형의 평균 신뢰도 점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능검사서 얻어진 결과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능검사 항목별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두 원형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및 t-value를 산출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연구원형의 전체평균이 4.08이고 기존 원형의 전체평균이 3.39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

형이 외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로는 뒤칼라폭, 앞허리다트의 위치와 분량, 옆선의 실루엣, 앞뒤중심선의 수직여부, 팔꿈치선의 위치, 윗팔과 손목둘레의 여유, 허리둘레의 여유, 소매의 전방성여부를 묻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두 원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6> 외관관능검사 항목별 유의도 검증결과

검사 항목	연구원형		기존원형		t-value
	M	S.D	M	S.D	
1. 칼라의 높임	4.13	0.88	3.23	0.32	3.84**
2. 뒤칼라폭	3.71	0.82	3.43	0.19	1.71
3. 어깨선의 길이와 위치	3.94	0.65	3.14	0.32	8.71**
4. 앞허리다트의 위치, 분량	4.01	0.93	3.56	0.25	1.08
5. 옆선의 실루엣	4.10	0.73	3.45	0.34	2.00
6. 앞뒤중심선의 수직여부	4.67	0.48	4.33	0.72	1.48
7. 전동둘레의 위치, 안정성	4.36	0.59	3.51	0.74	2.99**
8. 진동의 ease양	4.04	0.65	3.38	0.73	2.36*
9. 윗팔둘레의 여유	3.60	0.97	3.15	0.37	1.24
10. 팔꿈치둘레의 위치	3.31	1.16	2.37	0.18	1.76
11. 팔꿈치둘레의 여유	4.06	0.59	3.40	0.91	2.38*
12. 소매길이	4.66	0.48	4.13	0.83	2.14*
13. 손목둘레의 여유	4.13	0.51	3.72	0.59	1.97
14. 제킷길이	4.28	0.59	3.36	0.91	2.84**
15. 앞몸의 여유	4.23	0.35	3.12	0.91	3.95**
16. 뒤몸의 여유	3.93	0.59	2.80	1.01	3.74**
17. 허리둘레의 여유	3.87	0.64	3.60	0.50	1.26
18. 엉덩이둘레의 여유	4.06	0.58	3.00	1.36	2.78**
19. 전체적인 외관	4.21	0.67	3.07	0.11	6.35**
20. 소매의 전방성, 외관	4.30	0.47	3.96	0.06	0.90
전 체 평 균	4.08		3.39		

② 기능성관능검사

연구원형과 기존원형의 기능성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연구원형은 4.20이고 기존원형은 2.92로 연구원형이 훨씬 높았으며, 항목별로는 모든 동작항목에서 연구원형이 기존원형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연구원형이 매우 기능적이고 동작에 편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일대일 비교에 의한 평가

20명의 피험자에 대해 연구-기존원형, 기존-연구원형으로 순서에 의한 조합을 만들어 착용시킨 후 외관과 기능성에 대해 피험자가 직접 평가하게 하여 두 원형을 비교해 보았다. <표 8>은 먼저 착용한 원형을 기준으로 나중에 착용한 원형을 평가한 사람수를 나타낸 것이다. 피험자 20명 중 70%에 해당하는 14명이 연구원형이 외관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0%(4명)는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기능성에서는 20명 전원이 연구원형의 기능성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순서를 바꾸어 기존-연구원형의 순으로 착용시킨 후 실험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얻어졌다.

이상과 같이 관능검사와 일대일 비교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구원형이 기존원형에 비해 외관이 우수하고 매우 기능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 기능성 관능검사 항목별 유의도 검증결과

검사 항목	연구원형		기존원형		t-value
	M	S.D	M	S.D	
1. 오른팔 앞으로 90°올리기	4.40	0.55	3.20	0.84	2.68*
2. 오른팔 앞으로 180°올리기	3.60	0.55	2.00	0.00	6.53***
3. 오른팔 옆으로 90°올리기	4.60	0.55	3.60	0.55	2.89*
4. 오른팔 옆으로 180°올리기	1.10	3.80	2.40	0.55	2.56*
5. 팔짱끼기	4.60	0.55	3.40	0.55	3.46**
전 체 평 균	4.20		2.92		

*0.01< α ≤0.05 **0.001< α ≤0.01 *** α ≤0.001

<표 8> 일대일비교에 의한 상대적 평가결과

순서조합	외 관							평가합계	기 능 성							평가합계
	평가의 빈도수								평가의 빈도수							
	-3	-2	-1	0	+1	+2	+3		-3	-2	-1	0	+1	+2	+3	
연구-기존	0	8	6	4	2	0	0	-20	5	10	5	0	0	0	0	-40
기존-연구	0	0	1	5	9	5	0	18	0	0	0	0	4	11	5	41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클래식 재킷원형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가슴둘레가 91~94 cm인 20대 초반의 남자 중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가 15이고 신장이 170~175 cm범위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원형상의 비교와 착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남성 클래식재킷원형에 대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원형을 제시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남성이 클래식 재킷에서 알맞다고 느끼는 여유량은 제시된 연구원형에서와 같이 가슴둘레에서 신체치수+23~24 cm, 허리둘레에서 신체치수+31~32 cm, 엉덩이둘레에서 신체치수+14~15 cm, 윗팔둘레에서 신체치수+13~14 cm, 손목둘레에서 신체치수+14 cm, 그리고 소매의 ease분이 3.5 cm 내외이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치수가 아니며 특히 의복의 가슴둘레치수는 디자인이나 유행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큰 만큼 유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치수이다. 그러나 다른 복종의 원형제작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같은 사이즈스펙에 속하는 피험자 대부분에게 적합한 클래식 재킷 제작을 위해 기성복의 실루엣과 여유감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남성복은 여성복과 달리 실루엣이나 여유감을 파악하기 어려워 업체 패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로 하였으며 앞으로 셔츠, 바지 등 각 복종별로 유행과 소재의 특성이 고려된 원형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복 원형이나 그레이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와 업체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구자,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2) 유신정, 의복구성을 위한 20대 남성의 체형변화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3) 박은주, 청년기남성의 상반신 체형분석 및 원형설계를 위한 피복인간공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4) 김계선, 성인남자의 신체측측과 요인구조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5) 문화복장학원 편, 남자복, 문화출판국:동경, 1997.

- 6) 장신요, 한국인의 somatotype에 관한 연구 제1편-전라남도 남자의 somatotype, 대한해부학회지, 제15권 제1호, 1982, pp. 9-18.
- 7) 김구자, op. cit., p. 110.
- 8) 김지순·이순원, silhouette에 의한 한국남성의 체형분석,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10집, 1985.
- 9) 유신정, op. cit., p. 31.
- 10) 김미경, 석고법에 의한 남성복 Bodice원형의 피복인간공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1) 최혜옥, 의복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남성복의 상의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2) 김진선, 남성복 상의원형제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3) 권순정, 남성 Casual Jacket원형에 관한 연구 -20~24세 대학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4) 석혜경, 남성 Casual Jacket의 소매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5) 남윤자·이형숙, 남성복 바지 원형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13권 제1호, 1993.
- 16) 김진경·박정순·이경희, 체형별 상지동작에 따른 상체의 체표면 변화에 관한 연구 -남자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2호, 1988, pp. 1-13.
- 17) 최선영, 상지동작별 형태변형에 따른 남성복의 기능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8) 최영미, 컴퓨터에 의한 남성복원형의 제도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9) 이형숙·남윤자 공저, 남성복 연구, 교학연구사, 1996, pp. 54-58.
- 20) 문화복장학원 편, op. cit., pp. 93-94.
- 21) 서울 모델리스트 아카데미 교재, 1997.
- 22) 공업진흥청,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규격 단순화, 1990.
- 23)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공업진흥청, 1992, p. 67.
- 24) 김혜경 외 7인,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 교문사, 1997.
- 25) 池田和子 外 3人, 衣服の着用評價とパターンとの關係について(第2報) ——對比較法による評價, 文化女子大學研究紀要 第19集, 1988.
- 26) 박은경, 자켓의 기본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27) 석혜경, op. cit.
- 28) 위수영·임원자, 토르소(torso) 패턴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20권, 1995.
- 29) Mabel D. Erwin의 2인, Clothing for Modern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79.
- 30) Judith Rasband, Fabulous Fit,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94.
- 31) 남윤자·이형숙, op. cit., p. 59.